

섬·자연자원에 음악·연극·무용·영상·미술 접목

청소년에 예술적 감성 심어준다

신안군-한국예술학교 '섬 & 아트 프로젝트' 시동

신안군이 1004개의 섬과 예술을 결합시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박종원)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신안군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에서 '천사섬의 천사들을 위한 아트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섬&아트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트캠프는 신안군 내 3개 섬(암태·팔금·안좌)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섬&아트 프로젝트'는 신안군의 1004개 섬과 자연자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음악·연극·무용·영상·미술·전통예술 등 6개 분야를 접목시키는 '예술 섬 조성 프로젝트'로, 이를

기관은 지난해 8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5월까지 프로젝트 종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에 앞서 마련된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올해는 '주민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공연-아라운드 아트(Around art)' 등의 예술교육 사업과 각종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예술을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관광자원으로 부각된 신안군에 또 다른 관광자원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이 신안을 찾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트캠프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운



지난해 9월 안좌~자라간 연도교 기공식에 맞춰 가진 섬&아트 프로젝트 기공식 장면.

영을, 신안군은 참여 학생들과 강사

아이기(팔금중) ▲영화놀이터-꿈나

들의 지원을 각각 맡았다.

무필름 캠프(안좌중) 등이, 둘째 주

에는 ▲길 따라 전설따라 전설탐험대

(암태초) ▲오감을 깨우는 상상놀이

터(팔금초) ▲금관 악기로 만드는 새

로운 양상불(안좌초) 등으로 진행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순회 기획전' 대상

목포자연사박물관 선정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2013년 지역순회 공동기획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8일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에 참여함으로써 전시에 따른 일체 비용 최대 1억원을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국 공·사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공동기

획전' 사업에 응모한 40여개의 박물관 가운데 4곳을 선정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목포자연사박물관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생물표본과 화조도, 조종도 등 조선시대 민화작품 139점을 9월 민족 대명절 한가위 연휴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획전시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신항 시설 사용료 동결

목포신항 시설 사용료가 동결됐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신항 부두 이용 외항선과 회물에 부과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난해와 같이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신항 사용료 감면률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목포항만청은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유

지를 견의했다. 현행 유지 결정에 따라 5만급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1황차(4시간 접안 기준)당 평균 170만원이 절감된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8일 "감면율을 유지로 증가 주제인 수출자동차의 안정적 처리와 예·도선업 등 연관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정읍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상화

미니픽 감염동을 연구동 신축

KIT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민영화 방침을 정해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감소와 우수 연구인력 이탈로 연구역량이 현저히 감소한 바 있다.

정읍시는 미니픽 감염동을 시험연구동과 관련 오는 2015년까지 국비 등 200억원을 들여 KIT 전북 영장류시험본부 내에 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미니픽 감염동을 시험연구동은 돼지 췌장을 원종이에 이식, 소아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읍=박기설기자 parkks@

저출산 영향 학급당 학생수 30명 아래로

초등생 수업환경 개선 기대

전북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올해 처음으로 30명 아래로 내려가 수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시 지역 29명, 읍 지역 28명, 면 지역 26명으로 하는 '2013학년도 각급학교 수용지표'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시 지역 31명, 읍 지역 30명, 면 지역 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시·읍·면 지역은 각각 1명씩 줄었다.

특히 2007년 학급당 학생수가 37명

이었던 시 지역은 이후 해마다 감소해 2009년 34명, 2011년 32명, 지난해 31명에서 올해는 29명으로 처음으로 30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학급당 학생수가 준 것은 무엇보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 아동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다 초등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도교육청의 노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선봉과가 주는 충격은 있지만 수업환경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명, 34명으로 확정됐다. 군산은 34명으로 지난해와 같고 시지역 비평준화 고교와 전문계열 고교도 30명으로 똑같았다.

읍·면의 일반·전문계열 고교는 28명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중학교는 시 지역 35~36명, 읍 지역 33명, 면 지역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선봉과가 주는 충격은 있지만 수업환경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주 덕진공원, 전통공원 만든다

관광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덕진공원~예술회관~건지산·가련산~소리문화의 전당~덕진체련공원~동물원을 둘러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덕진공원 담 400여m를 없애고 그 자리에 1만여 그루의 불도화, 백당화, 꽃사과, 이팝나무 등을 심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고 밝혔다.

남원시 농축산물 수출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남원시 대표적 수출품목인 파프리카·배·멜론·쌀·포도·딸기·사과·화훼 등 신선농산물은 일본·대만 등 10여 개국에, 가공식품인 음료·만두·우동·전통주·액상차·홍삼·축산물은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30여 개국에 각각 수출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올해도 무사산행 빙니다"

는 시산제를 가졌다.

남원시 작년 농축산물
2621만달러 해외수출

남원시의 농수축산물 해외 수출액이 지난해 2621만 달러를 기록, 전년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는 8일 "지난해 태풍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새해 새 설계

“흑산 소형공항 차질없이 추진”

"2013년 계사년에는 신안군민 모두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물론, 자긍심을 갖는 재도약의 해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하겠습니다."

박우랑 신안군수는 8일 낙우지 역으로 인식돼 왔던 신안의 섬에 대내외의 술한 난관을 극복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었다고 2012년을 평가했다.

박 군수는 "군민과 함께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이는 해로 삼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관광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세웠다.

천사섬 관광의 획기적 전기가 될 흑산 소형공항, 도조 사파리 아일랜드, 새천년대교와 신안대교, 하의~신의 및 안좌~자라간 연도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압해읍 승격에 따른 군청사 주변의 도시화와 SOC확충에도 나선다. 압해도로의 보건소 이전과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압해~운남 간 연륙교 조기 완공, 신장~복릉 간 4차선 도로 확장, 지도~임자 연륙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다운 천사 섬을 특색 있는 친환경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100년을 바



농악병이 없는 독일 수준의 깨끗한 농촌, 경관식물 묘목사업, 음미 별 특색 있는 테마공원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자연생태지역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기름진 땅 등 천혜의 자연 여건을 기반으로 신안을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 지역, 광활한 바다와 땃벌을 활용한 친환경 수산업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박 군수의 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웰빙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프랑스 계량드, 이탈리아 코마치오와 더불어 신안 천일염이 세계 3대 명품 천일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틈새 작목과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천일염과 신안섬조, 마늘팡콩 등 농수산물의 현지 가공시설과 콩, 팥, 녹두, 조, 기장, 수수 등 친환경 잡곡 단지 조성, 틈새 소득작물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박우랑 군수는 "군청사 이전, 압해읍 승격, 보건소 이전 등을 계기로 군청사 주변을 도시화해 인구 10만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가고 있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단신

군산해경, 작년 응급환자 66명 구조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조업 중인 선박이나 섬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48명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로, 해경은 경비함정 8척에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초동대처 시간이 빨라졌다.

박우랑 군수는 "섬과 해안선, 갯벌 등 해양자원은 신안의 중요도 운 미래를 열어갈 큰 자산"이라며 "친환경 세계 확대 지원, 폐비닐과

渣포갯벌 생태계 총정리 책자 발간

란사르습지로 지정된 부안군 줄포면 줄포만갯벌의 생태계를 총정리한 책자'가 나왔다.

부안군은 8일 줄포만 습지보호 구역 관리사업으로 갯벌을 보전하고 갯벌 생태식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연생태도감'을 발간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고창 판소리전수관, 무료 국악교실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국악교실을 운영한다.

판소리전수관은 국악강사 5명과 한국무용 전문가를 위촉, 6개 월간 1600명(월 130명)에게 국악을 배울 기회를 준다.

국악교실은 판소리반, 가야금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전주국제영화제 스태프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가